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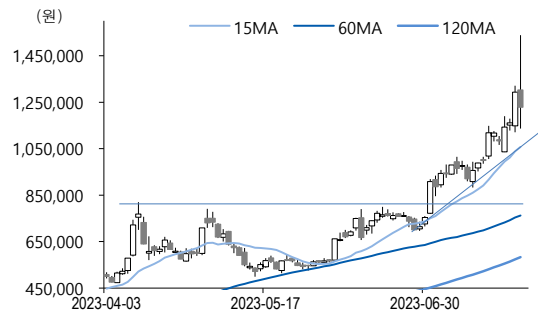


하락 종목 수 급증의 의미

1. 2차 전지 관련주, 단기 고점대 형성 가능성

- 전일 주식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장 중 변동폭 크게 나타나 투자심리 극도로 불안한 모습.
- 에코프로는 과매수권에서 거래량 급증하는 가운데 윗꼬리 길게 형성되어 고점대 형성 가능성 높은 패턴 보임.
- 반대로 삼성전자는 거래량 증가하면서 장 후반 낙폭 줄이면서 아래 꼬리 길게 형성하면서 하방 경직성 강한 모습 보임.

에코프로 일봉과 거래량, 과매수 국면에서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거래 증가해 고점대 형성 가능성 높음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KOSDAQ 하락 종목 수 급증의 의미

- 전일 KOSDAQ 지수 하락 종목 수 1,480종목으로 사상 최대치. 다만 하락 종목 비율은 94.4%로 사상 최대는 아님.
- 그래도 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과매도 상황으로 상승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, 하락 장에서도 단기 내지 중기 저점대 형성하는 신호임.
- KOSDAQ지수는 전일 하락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대 도달해 낙폭 제한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모습 보일 전망.

KOSDAQ지수와 하락 종목 비율 94% 이상인 경우, 대체로 장기 하락 국면에서 단기 내지 중기 바닥권 형성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2차 전지 관련주, 단기 고점대 형성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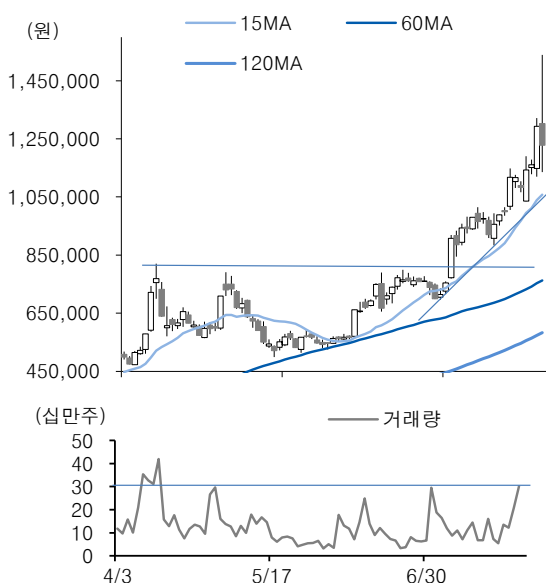
전일은 극심한 장 중 변동성을 보인 날이었다. 특히 쏠림 현상이 심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장 중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,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는 장중 고점대비 저점의 수익률 차이가 31.17%p를 기록한 가운데 -5.03% 하락 마감되었다.

전일 에코프로와 같이 과매수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음봉으로 하락 마감하는 것은 고점대 형성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. 특히 전일 거래량이 3백만주 수준을 기록했는데, [차트1]에서 볼 수 있듯이 에코프로 거래량 3백만주 수준은 저항에서 하락하거나 돌파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수준으로 고점대 형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.

장 중 삼성전자의 흐름은 2차전지 관련주들과 반대로 움직였는데, 장 전반에 하락하다가 후반에 반등하면서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을 형성했다. 특히 중요한 지지대들이 중첩된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낙폭 줄여 하방 경직성 강한 모양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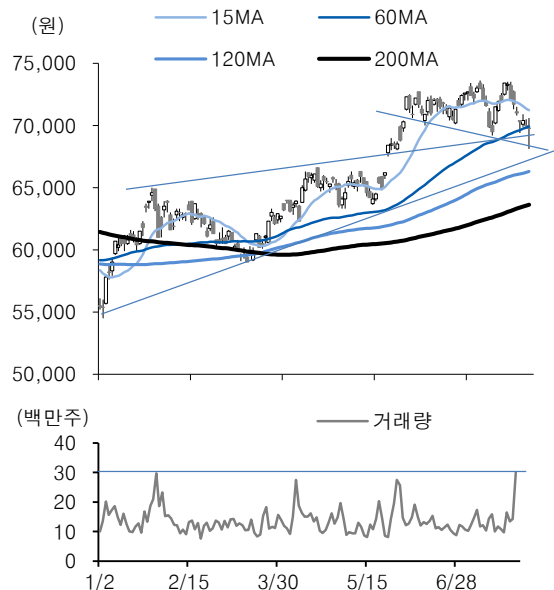
이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른 주요 종목들과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 자체는 방어 가능하고,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수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된다.

[차트1] 에코프로 일봉과 거래량, 과매수 국면에서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거래 증가해 고점대 형성 가능성 높음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삼성전자 일봉과 거래량, 거래량 급증하는 가운데 지지대에서 낙폭 줄여 하방 경직성 나타냄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KOSDAQ 하락 종목 수 급증의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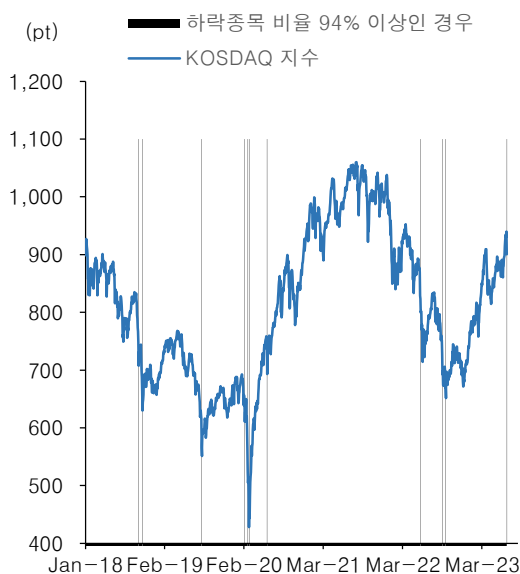
전일은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1,480종목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 종목수로는 최대이지만 상승+하락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율은 94.4%로 역대 최대는 아니었다. 어쨌든 자주 나타나지 않는 패닉 국면임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.

[차트3]은 2018년 초 이후로 KOSDAQ 지수의 하락 종목 비율이 94%를 상회했던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. 2020년 6월 15일을 제외하고 상승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은 처음으로 하락장에서도 단기 내지 중기 저점대를 형성하는 과매도라고 할 수 있다.

특히 [차트4]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일 장 중 저점대는 6월 고점대와 연초 저점에서 그 은 장기 상승 추세선 30일 이평선 등이 겹치는 가격대로 중요한 지지대라고 할 수 있다. 추가로 하락해도 6월 말 저점대 등 지지대가 하방에 위치한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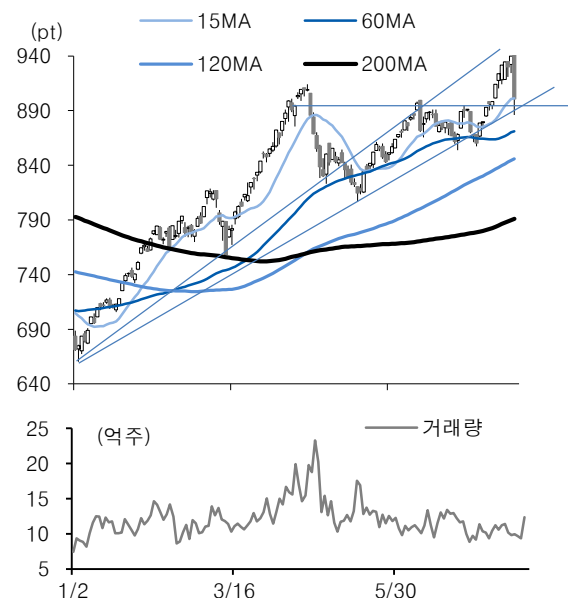
따라서 전일의 투자심리 위축이 아직은 추세하락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간조정 또는 제한적인 하락 과정에서 바닥 다지기 과정이 진행된 후에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.

[차트3] KOSDAQ지수와 하락 종목 비율 94% 이상인 경우, 대체로 장기 하락 국면에서 단기 내지 중기 바닥권 형성



자료: Check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KOSDAQ 일봉과 거래량, 전일 조정 과정에서 6월 고점대와 장기 상승 추세선 등 지지대 도달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3. 외국인 선물 매도,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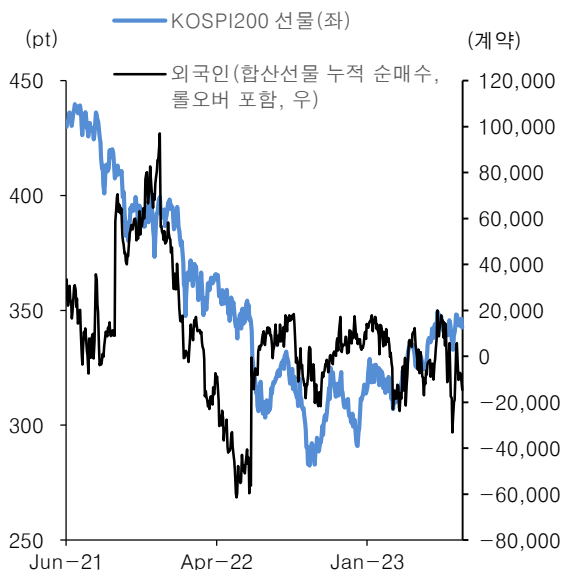
지난 7월 7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KOSPI200 선물 시장에서 -15,102계약 순매도하면서 함께 누적 순매도 계약수가 -3만계약을 하회하는 등 파생 시장의 외국인 포지션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.

전일까지 누적 순매도가 -14,592계약으로 아직 순매수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그다지 부담스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. [차트6]은 6월 만기 후 지금까지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선물가격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.

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포지션은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뿐 선제적으로 매도하거나 과도한 매도세를 형성하지 않았다. 단기 매매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물 거래의 특성상 하락 방향으로의 베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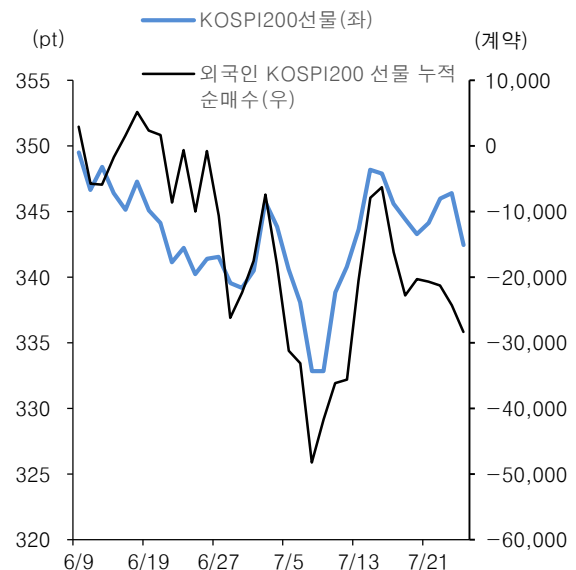
[차트5]는 외국인 선물 누적순매수의 장기 시계열을 나타낸 것인데, 최근 외국인 누적 포지션은 2022년 하락장에서의 흐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으로 인한 추세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.

[차트5] KOSPI200 선물과 외국인 선물 함께 누적 순매수, 최근 순매도권에 있지만 하락 추세에서와는 다른 모습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6] 6월 만기 이후 KOSPI200 선물과 외국인 누적 순매도, 순매도 기록 중이지만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모습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